

세계 최초 드론축구 전용경기장 문 열다 청년이 그리는 미래 연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준공식 개최… 드론스포츠 중심 도약 기대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에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갖춘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

특히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등 드론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축구와 야구, 육상, 실내스포츠, 레저스포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건립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및 기념 촬영 △시설 라운딩 △드론축구부 시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총 8개 팀이 참여



전주시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한 대한드론축구협회 주관 드론축구 세미프로 리그전이 열려 준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 국비 등 총 사업비 146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론,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부 개발 과정과 경기 규칙,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 축구의 역사, 국가대표팀 유니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이날 준공식에 이어 첫 공식 국제행사로 올해 9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의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상 처음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30여 개국 선수단이 참가해 세계 최정상급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준공 이후 오는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 개관과 본격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세계 최초 드론축구의 발상지로서 드론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라며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를 드론스포츠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오는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주가 드론스포츠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구·청년 분야 4대 추진 전략 제시

전주시가 청년들이 찾아와 머물며,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그려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6일 인구청년정책국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전주'를 비전으로 한 인구·청년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청년과 함께 삶을 설계하는 도시 △미래를 일구는 J·디탈埔 청년일자리 △청년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정주형 인구정책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이다.

먼저 시는 청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분야별 간담회, 청년실태조사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도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주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시는 또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전주시의회 및 분야별 청

년단체가 함께하는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 모니터링과 자문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시 제안 창구를 마련해 '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 고도화를 통해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팝업부스' 운영과 '청년 홍보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로컬안에서 청년이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취·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펜지플래닛, 대학의 창업지원단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창업인프라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며 음식과 문화 콘텐츠 등 전주만의 감성을 살린 취·창업모델을 적극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방안 보고회 가저

전주시는 지난 25일 부시장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파악 및 징수를 향상을 위한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총괄부서와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징수실적 및 그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미수납액 정리 및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부서별 부진 사유 및 개선방안 수립 △징수를 개선을 위한 체납징수 방안 마련 △향후 징수전망 및 징수대책 등이다.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은 "부서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안전적인 재정 운영과 건전한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자원순환시설 현장견학으로 생활 속 쓰레기 줄인다

전주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래세대 등 시민들의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을 지원해 생활 속 쓰레기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26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강민철),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완산시민경찰연합회(회장 성완오)와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자원순환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초·중·고등학생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몸소 자원 재활용과 환경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 속 쓰레기 배출 감량의 필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견학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450



전주시는 26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강민철),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완산시민경찰연합회(회장 성완오)와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자원순환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새활용센터 등 쉽게 갈 수 없었던 전주시 주요 자원순환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내가 버린 생활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각 기관과 협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동참하며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쓰레기 감량 실천으로 이어져 탄소중립 전주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체납자 가택수색… 5800만원 물품 압류

전주시는 지방세 1000만 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총 165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60만 원을 현장에서 발견해 즉시 체납세에 충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압류된 물품은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으로 총 감정가

액은 5800만 원에 달하며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완료됐다.

압류된 물품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은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만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물품 확인만 가능하며, 모든 응찰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전주시는 26일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위촉된 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시 관계자와 전주시의원, 도시·건축·경제·문화·교육·복지·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의 성과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각종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변화와 경제적 여건, 문화적 자원, 교육 및 복지 수요,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위원들은 향후 추진될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전주시의 도시재생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점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